



The 40th Anniversary Bulletin of Korean Diabetes Association

40주년 기념신문

발행처 : 대한당뇨병학회 40주년 기념사업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르네상스타워빌딩 10층 1010호 우:121-706
TEL. 02) 714-1968 / FAX. 02) 714-9084 발행인 : 최동섭 편집인 : 유형준

7호 2008년 9월
www.diabetes.or.kr



40주년 기념인터뷰 ⑦ 18대 회장 이홍규 교수

당뇨병 연구의 높은 열정 학회에 불어넣다

"40주년 기념 원로교수 인터뷰"는 학회 역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원로회원의 고견을 듣는 자리로, 그 일곱 번째 인물은 2001년 제18대 회장직을 역임한 이홍규 교수이다. 이홍규 교수는 현재 서울의대 내분비내과에 재직하고 있다. 인터뷰는 4월 18일(금)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이홍규 교수 연구실에서 열렸으며, 진행은 유형준 40주년 기념사업단 실무추진위원장이 맡았다. <편집자>

이홍규 교수의 연구 열정은 학회에서 책임을 맡은 위원회, 소연구회 목록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1987년 식품영양위원회 1대 위원장, 1992년 연구위원회 1대 위원장, 1996년 교육위원회 3대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2002년 대사성 증후군 및 미토콘드리아 소연구회, 2003년 당뇨병성 신경병증 소연구회, 2005년 에너지대사 소연구회와 대사증후군 소연구회를 설립하였다. 그의 끊임없는 연구 활동의 동력이 무엇인지, 학회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2면으로 이어짐>

40주년 신문은 학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01

02

0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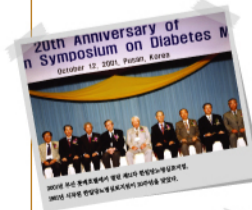
18대 회장
이홍규 교수
인터뷰

40주년 기념사업단
경과/보고



역사의 현장
당뇨버스 출범

사진으로 보는
당뇨병학회 21세기





당뇨병 연구의 높은 열정 학회에 불어넣다

<1면에서 이어짐>

이홍규(이하 이) : 학회가 만들어진 지 어느덧 40주년이 됐다는 것이 놀랍고 또 당뇨병환자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자체가 놀랐습니다. 학회가 환자들을 위해 좀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과거를 한번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형준(이하 유) : 1979~1983년 7~8대 총무직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1차 한일당뇨병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회고를 부탁드립니다.



이 : 1981년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한일당뇨병심포지엄을 맡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야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 준비에 소홀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학회의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치러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모여 식사도 하고 술도 마셨던 일이 기억에 남네요. 당시에는 학문교류보다 인적 교류에 신경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 한일 양국의 유대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 : 1991~1995년까지 제13, 14대 부회장직을 맡으셨습니다. 당시 교과서 『당뇨병학』 출간, 당뇨병주간 개최, 소식지 발간 등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 부회장으로 일한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회장님을 모시고 일을 도와드린 거지요. 제가 학회에서 주로 했던 것은 식품영양위원회를 만들어서 당뇨병 식이요법을 정립하는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연구 방법론을 도입한다든지 그런 일이었습니다.

교과서를 만드는 일은 이태희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학회의 큰 이정표 하나를 세운 일이었지요. 당뇨병주간은 IDF 차원에서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우리 당뇨병학회도 거기에 발 맞추어 열심히 했습니다.

유 :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영양, 연구, 교육위원회를 맡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당뇨병 영양 쪽으로 큰 일을 하고 계시구요. 당시 이아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 당뇨병학회에서 처음 만든 특별 위원회가 식품영양위원회였습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식이요법의 초기 자료는 김응진 선생님이 미국 교과서를 보시고 만든 것이었는데, 우리나라 사정과 잘 안 맞아 조정을 할 목적으로 식이요법지침서 제작을 시작했지요. 우여곡절이 많았답니다. 영양학 하시는 분들과의 협조 문제 등 혼란스러운 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식이요법의 골격이 갖춰지긴 했지만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유 : 2001년 제18대 회장을 역임하실 때는 당뇨병 교육자 인정 자격시험이 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지요. 학회에서 이사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많은 기여를 하시고 저는 도와주는 정도의 역할만 하였습니다.

유 : 학회의 성장과 발전을 보시면서 보람 있었던 일과 아쉬웠던 일이 있으시다면요.

이 : 제 과거의 대부분이 학회와 관련되어 있어 개인의 발전이나 변화가 학회의 그것과 모두 관련되어 있어요. 가장 뿌듯하다고 느꼈던 점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음에도 의사소통이 아주 잘 되는 구조로 학회가 움직여왔다는 점입니다.

아쉬웠던 점은 환자들을 위해서 진정한 연구를 하도록 리더들이 앞장서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연구를 위한 연구, 학회를 위한 학회가 아니라 당뇨병환자를 위해 연구하고 활동하는 학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유 : 40주년을 맞이한 학회의 사업 방향과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 : 당뇨병학회는 당뇨병을 예방, 치료하는 학자들 또는 의료 종사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잘 조직해야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당뇨병환자 수를 계속 감소시키고, 환자들이 싸고 올바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차세대 지도자들이 나오면서 계속 발전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늦고 항상 모자란 것이겠지요.

유 : 선생님께서는 당뇨병 연구자들 중 처음으로 미토콘드리아 분야에 눈을 돌려 많은 업적을 내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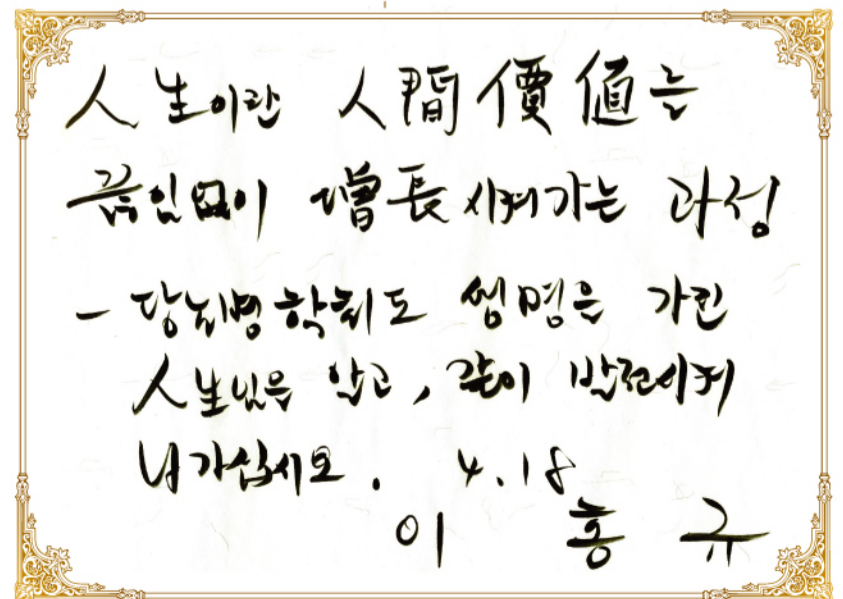
이 : 당뇨병 문제는 앞으로 환경의학 분야와 연계되어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방 면에서는 환경이나 독성외과학, 클리닉 면에서는 대사증후군과 연계해야 할 것이고, 기초 연구에서는 미토콘드리아의 생리 등 미토콘드리아 자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 : 40주년을 맞아서 학회와 후학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 또는 질책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 여러분들의 인생은 당뇨병환자와 같이 가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어떤 것이 환자를 위한 최선의 노력인지 항상 생각한다면 저절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합니다.

그는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학회가 당뇨병 예방과 치료 사업, 그리고 연구에 더 많은 열정을 쏟아야지 동영상까지 찍으며 인터뷰는 무엇 하려 하느냐고 하였다. 그렇게 약간은 경직된 분위기에서 시작한 인터뷰는 진행되는 동안 학회에 대한, 당뇨병 연구와 환자에 대한 그의 넘치는 사랑을 그 자리에 있었던 인터뷰 관계자들이 모두 느끼게 되면서 푸근해졌다. 인자한 웃음으로 배웅해주는 이홍규 교수의 연구실에 따사로운 봄 햇살이 가득 했다.

이홍규 18대 회장의
대한당뇨병학회 40주년 기념 휘호



기념우표 기부금 모금 현황

총 217명 12,500,000원 (9월 18일 현재)

"당뇨병학회 40주년 기념우표-당뇨병환자를 위한 사업기금 조성" 기부금 모금을 시작한 이후 9월 18일까지 총 217명 12,500,000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40년사』 마무리 발간 작업

『40년사』 본문 원고 및 사진 작업이 9월 12일(금) 마무리되었다. 앞으로 2~3차례의 교정 작업과 표지 디자인 검토를 거쳐 10월말 『40년사』가 발행될 예정이다. 『40년사』 출판기념식은 10월 31일(금) 오후 6시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거행될 계획이다.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4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제34차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인 10월 31일(금) 오후 3시10분~ 6시10분 "당뇨병 연구에서의 선구자적 역할"을 주제로 개최된다. 허갑범 교수(허내과의원), Harold Lebovitz 교수(SUNY, USA), Yutaka Seino 교수(Kansai Electric Hospital, Japan)가 연사로 참가한다.

환자를 찾아 달려가는 당뇨버스



〈1998년 11월 4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당뇨버스 출범식〉

1998년 11월 4일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당뇨버스 출범식이 열림으로써 의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조기에 당뇨병 진단을 받지 못하는 지역을 찾아 당뇨버스가 달려가기 시작했다.

당뇨버스의 무료검진 행사는 당뇨병환자의 조기 발견과 계몽, 당뇨병의 전국적 역학조사, 당뇨병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당뇨버스 운영위원회가 실무를 담당했으며, 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바이엘코리아가 지원했다.

당뇨병 무료 검진과 관련된 각종 기기 및 계몽 자료가 탑재된 당뇨버스는 매월 2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당 지역의 지정된 장소에서 무료로 운영됐다. 버스의 운영 요원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진행보조요원 2명으로 이루어졌다. 당뇨버스의 첫 운행은 1998년 11월 14일 추계학술대회장이었던 대구의 동대구역 앞 터미널에서였다.

시행 초기에 당뇨버스가 지방으로 봉사할 때는 개원가의 반대가 꽤 심했다. 그 지역의 환자를 뺏으려 왔다는 오해 때문이었다. 또 역전 광장에서 무료 검진을 할 때는 노숙자들의 검진 요청도 많았는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노숙자들로 인해 요원들이 한참 동안 진땀을 빼야 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 국도에서 버스가 고장 나서 견인을 당한 적도 여러 번이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총 44회 운행을 통해

40주년 기념 동영상 제작 완료

4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3~4월 진행된 여덟 명의 원로교수 인터뷰 동영상 제작이 9월 18일(목) 완료되었다. 이 동영상은 제34차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 학회 부스 등에서 상영할 계획이며 추계학술대회 이후 회원들이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게 학회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10월 4일 당뇨병학회 40주년을 맞아 기념우표 구입하세요!

10월 4일은 대한당뇨병학회가 4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기념우표가 더 필요하신 회원은 기념사업단으로 연락 주십시오. 가격은 전지 한 장당 1만원입니다. 구입하시려는 매수만큼 입금하신 뒤 전화나 메일 주십시오.

입금계좌 : 국민 392801-04-067336 (재단법인당뇨병학연구재단)

연락처 : 02) 714-1968 (40주년 기념사업단)

이메일 : kda40th@diabetes.or.kr



역사의 현장 - 당뇨버스 출범 (1998년 11월)

4,029명의 일반인에게 혈당측정과 상담을 무료로 시행하였다.

약 4년간 잘 달려가던 당뇨버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2002년도 후반기부터 운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그러던 중 한국에보트와 새로 후원 조인식을 갖고 당뇨버스를 새롭게 단장하여 2003년 3월 22일 출범식을 가졌다. '나도 혹시 당뇨?'와 '당뇨 관리 이제부터...'라는 두 표어를 버스의 양 옆 구리에 붙이고 꿀벌 문양으로 장식한 당뇨버스가 제2의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전까지는 당뇨버스가 중앙에서 홍보위원을 중심으로 파견되어 실시됐던 반면 2004년부터는 각 지역의 요청으로 당뇨버스가 그 지역을 찾아가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당뇨 관련 행사 활성화와 새로운 당뇨병환자를 발굴해내는 본연의 임무가 좀 더 충실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 결과 2003년 3월 2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총 33회 운행에서는 8,082명의 일반인에게, 2004년 1월 2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총 21회 운행에서는 3,033명의 일반인에게 혈당측정과 상담을 무료로 실시했다.

이렇듯 1998년부터 2004년 버스 운행이 끝날 때까지 당뇨버스는 총 100여 회 운영됐으며, 그 속에서 총 1만5,144명의 일반인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지방 곳곳을 다니며 우리사회 전반의 당뇨병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한 당뇨버스는 6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 짓고 학회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다.



〈2003~2004년 운행했던 2차 당뇨버스〉

사진으로 보는 21세기 당뇨병학회

20th Anniversary of
Symposium on Diabetes M
October 12, 2001, Pusan, Korea



2001년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한일당뇨병심포지엄.
1981년 시작된 한일당뇨병심포지엄이 20주년을 맞았다.



2002년 8월 14~17일 제주도에서 열렸던 단계별 당뇨병 관리(SDM) 워크숍 기념사진.



젊은 당뇨인을 위한 2030 캠프가 2004년 제1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사진은 1회와 5회 2030 캠프.



2007년 당뇨병주간 행사의 하나로 실시된 남산 서울타워
'푸른빛 점등식'. 이 행사는 서울뿐 아니라 전 세계 100여
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되어 당뇨병 극복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파하였다.



2008년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1195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춘계학술대회.



2008년 3월 30일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제7차 IDF-WPR 총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부산이 다음 개최지로 결정되었다.
사진은 이문규 국제협력위원회 이사가 한국 유치를 호소하는 장면.